

<중복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>

#25 Li와 Mg의 반지름이 실제와 다르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.

원자 반지름은 계산값이나, 측정값이나에 따라 다릅니다.

전자는 $Li < Mg$ 이고 후자는 $Li > Mg$ 입니다.

화1 수준에서 경향으로만 Li와 Mg의 반지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

그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구요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31 D가 Be가 될 수는 없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. 경향상 가능하나,

출제진에서는 Be를 거르는 조건을 넣기가 애매하여(문제가 더러워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) 수치상으로 어림잡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.

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화1 수준에서의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.

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54 C와 Na의 유효 핵전하를 화1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.

포만예평 기출 문항입니다. 출제진에서는 E수특에서 유효핵전하의 그래프가 주어졌고 이에 따른 '지엽 학습 대비'를 위해 ㄱ 선지를 의도했습니다.

유효 핵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수록,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수록 커진다는 개념과

주기가 바뀔 때 값이 툭 떨어진다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

따라서 C와 Na의 유효 핵전하 비교에 대하여서 반드시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학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119 풀러렌과 탄소 나노튜브가 '폐곡면'이기 때문에

흑연과 함께는 1g당 탄소-탄소 결합 수에 대하여 문기가 힘들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.

1g이라는 양은 곡면 상에서의 오차 값을 충분히 무시할 만큼 큰 값입니다.

1g당 탄소 원자 수는 1/12 곱하기 아보가드로이므로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 수가 내부에 존재하는 원자 수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.

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화1 수준에서 오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

그러나 이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걸러질 개념일 것입니다. 죄송합니다.

학습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

#143 개별적 실험인지 연속적인 실험인지에 대하여 이 문항은 '연속적 실험'이며,

생성된 C의 질량은 '누적 값이 아니라' 개별 과정에서 생성된 C의 질량입니다.

#168 그림을 '기체 모형'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.

이온 모형 같은 모형이 아니라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.